

“진도 ‘다시래기’ 통해 부모·자식간 상처와 화해 다뤄”

진도의 장례풍습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특이하다. 진도에서 죽음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진도 장례문화는 그 자체가 축제이자 놀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81호인 진도 ‘다시래기’는 출상 전날 밤 노래와 재담으로 망자의 극락왕생을 빌면서 유족을 위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풍습이다.

다시래기를 소재로 한 극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늙은 소와 농부의 이야기를 담은 ‘워낭소리’로 2009년 293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다큐멘터리 사상 유례없는 흥행을 거뒀던 이충렬 감독이 13년 만에 선보이는 ‘매미소리’가 오는 24일 개봉한다.

영화는 2020년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받으며 화제가 됐지만 코로나 19로 개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작품은 다시래기의 최고봉이 되겠다는 야망에 사로잡힌 광대 아버지 덕배(이양희)와 그런 아버지로 인해 어린 시절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진 무명 가수 딸 수남(주보비)이 20여년만에 진도에서 만나면서 지난 상처와 갈등을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담았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현재 진도에 머물고 있다는 이 감독은 작품에 대해 “부모, 자식간의 상처와 화해를 죽음을 통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부모 자식간에도 오해가 있고, 그 상처가 커져서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화해하기도 합니다.

이충렬 감독, 영화 ‘매미소리’ 24일 개봉... ‘워낭소리’ 이후 13년만 ‘축제이자 놀이’ 진도 장례 문화 담아... 진도 출신 송가인 특별 출연

이혼율이 증가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등 갈등이 심해지는 지금,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싶어요.”

예전부터 장례문화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 감독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진도를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의 장례문화를 접했다. 보통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반해 진도에서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독특하고 생경한 문화를 작품에 담고자 우선 다큐멘터리로 작업을 했다. 이후 다시래기와 관련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더해 영화로 만들었다.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건 상주들이 광대들을 불러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마당극처럼 놀이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래기를 소재로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광대들이 상주, 문상객들과 하나가 돼 배새노는 문화는 그저 망자의 극락왕생을 바라거나 유족들의 슬픔을 날려주는 의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독은 ‘다시래기’ 자체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니었다.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죽음’이다. 이 죽음을 바탕으로 딸과 아버지 사이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란 설명했다.

“다시래기는 그 자체로 죽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딸은 어릴 적 트라우마로 자살 증상에 걸리는데, 아버지처럼 늘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요. 초상집을 찾아다니는 아버지 또한 항상 죽음 곁에 있죠. 다른 듯 같은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이들 이야기에 다시래기가 가장 적절한 소재였어요. 이들이 상처, 갈등에서 벗어나 화해하고 치유되는 과정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는 영화 제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워낭소리’를 ‘추억을 불러오는 소리’라는 의미로 썼는데, ‘매미소리’ 또한 어릴 적 트라우마와 고통을 불러오는 소리를 뜻한다는 것이다. 또 덕배와 수남이 만나는 배경인 ‘여름’을 상징하기도 하고, 광대나 가수를 의미하는 ‘매미’가 내는 소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작품에서 진도 출신가수 송가인이 특별출연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 감독이 1990년대 중후반 다큐멘터리 작업

당시 깃김꿨을 하던 송순단 명인을 처음 만났고, 그의 딸인 송가인이 영화에 특별출연하는 인연으로 이어졌다. 송가인에 대해서는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다방면의 예술적인 피가 흐르는 예인(藝人)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앞으로도 한국적인 소재, 정서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생각이다.

“제가 잘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자극적이고 전편일률적인 작업 보다는 정서적인 호소력이 담긴 아날로그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고 싶습니다. ‘워낭소리’나 ‘매미소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죠. 이런 장르의 영화도 간혹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충렬 감독



송가인



영화 ‘매미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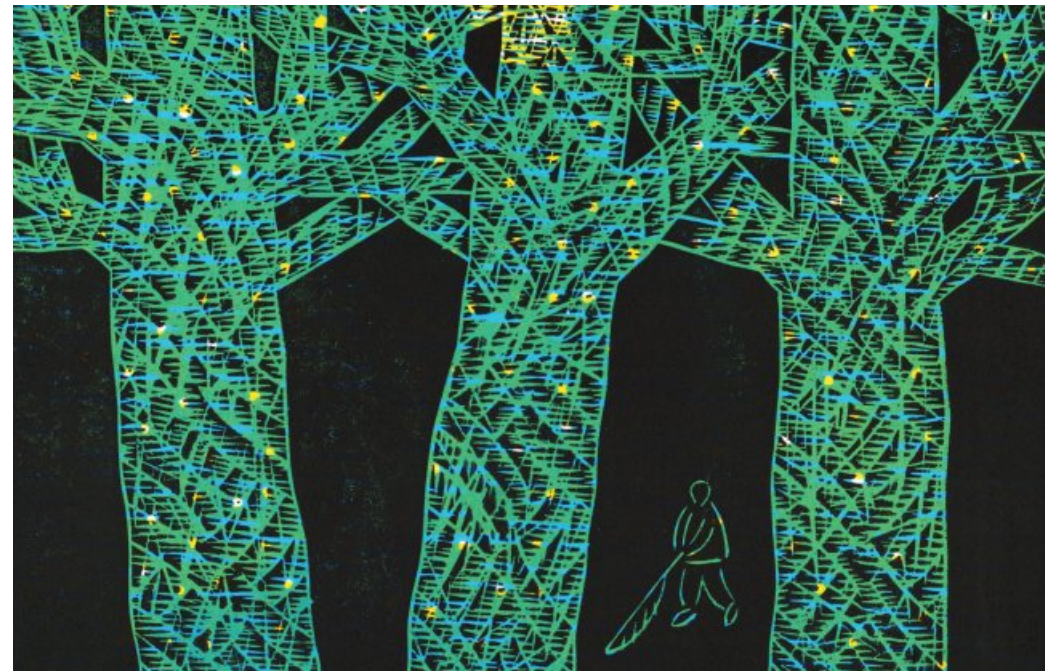
광주 원로 판화 작가 강행복 별세

광주의 원로 판화 작가 강행복(사진)씨가 7일 별세했다. 향년 70세.

경기도 김포 출신인 고인은 홍익대 응용미술과에서 조각디자인을 전공했다. 대학시절 한국 판화 1세대인 유강렬 교수에게 판화를 배웠다. 대학 졸업 이후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다 1987년 회사 생활을 접고 광주로 내려와 30년 넘게 줄곧 판화작업을 펼쳐왔다.

강 작가는 광주 정착 초기 불교적 소재에 관심을 가지면서 호남은 물론 전국의 사찰을 다니며 탑과 연꽃·불상 등 절에서 만날 수 있는 도상들을 목판에 새겨 선불교와 결합된 독자적인 판화세계를 구축했다.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책자형 판화(북아트) 작업, 대규모 설치 작업, 명상적 비구상 작업 등 판화의 실험적 영역을 넓혀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신병 치료차 서울과 광주를 왕래하며 굵직한 전시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4월 서울 인사동의 통일화랑 초대 국제판화전에 참여하는 등 투병 중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와중에 급서, 지인들을 안타깝게 했다.



‘명성의 나무’

국립현대미술관·광주시립미술관·전북도립미술관 등 국내 주요 미술관과 불교 중앙박물관·송광사 성보박물관 등 사찰, 광주시청과 남구청, 일본 나고야 한국 총영사관 등 다수 공공 기관이 고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유족은 부인 조진숙 여사와 아들 성민(광주문화재단 대외협력팀), 딸 민정·행자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대학로 서울대학교 병원에 마련됐다. 10일 발인, 장지는 용인 로템파크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림이 있는 남도의 다락집 이야기

김집중 그림·이광이 글 ‘절절시시’ 출간... 10일 출판기념회

‘다락집’은 지표에서 층을 이루어 지은 모든 건축물을 뜻한다. 일반적인 집의 형태 뿐 아니라 누정이나 서원, 사당, 고개를 포함하며, 전(殿), 당(堂), 합(閣), 각(閣), 재(齋), 현(軒), 루(樓) 모두 다락집이라고 한다.

한국화가 김집중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언론인 출신 이광이씨가 글을 쓴 ‘절절시시-그림이 있는 남도의 다락집’이 나왔다. 책에 실린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는 10일부터 16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리며 10일 오후 2시에는 출판기념회도 개최된다.

책 제목 ‘절절시시’는 ‘어찌해야사(士)답다고 할 수 있을는지요?’라는 자문의 질문에 “절절(切切)하고 시시(翼翼)하며, 이이(怡怡)하여야 사답다고 하리라”라고 답한 공자의 말에서 따왔다. ‘절절 시시 이이’는 간절하고 예절찬 상태(절절), 굳세어 꺾이지 않는 자세(시시), 기쁨을 환하게 드러내는 모습(이이)을 말한다.

책에는 다양한 다락집을 통해 학자, 관료와 상인, 의병장과 독립운동가 등 절절 시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는 30편의 글과 그림이 실렸다. 1부 ‘인자(仁者)나 보다 남을 사랑한 사람들’에서는 화순 절동마을 영사재, 광주 월봉서원 방월당, 장성 고산서원 담대헌, 무등산 춘설헌, 장성 관수정을 찾아 간다. 2부 ‘지자(知者)나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에서는 장흥 장전재, 광주 환벽당, 강진 사의재 등을 찾아 실학자 위백규, 시인 김윤제 등의 삶을 들여다 본다. 마지막 3부 ‘용자(勇者) 죽음으로 지킨 인간의 존엄’에서는 양평산, 김덕보, 이최선의 흔적을 찾아 화순 학포당, 광주 풍암정, 담양 문일정으로 떠난다.

이 씨는 음악에 관한 동화책과 인문서 ‘스님과 철학자’를 썼으며 김 작가는 기대승선생 송덕회 이사로 활동하며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백진서원

김남주 시인 28주기 추모제

12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김남주(1946-1994·사진) 시인 28주기 추모제가 오는 12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구 구묘역)에서 열린다.

이번 추모제는 김남주기념사업회와 광주전남 작가회의가 주최하고 광주전남추모연대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가 후원한다.

정양주 시인(광주전남작가회의 부회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추모제는 윤만식 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공동대표, 유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지담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이 추모사를 하고 고영서 시인이 추모시를 낭독한다.

이어 내뽕소리민족예술단의 추모공연, 김남주 육성 낭송시가 진행되며 김경운 기념사업회장이

김남주기념사업 보고를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가족 인사, 한화 및 분향을 끝으로 추모제가 막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해남 출신 김남주 시인은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체포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1988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이후 1994년 재향안으로 별세했다. 스스로를 ‘시인’이 아닌 ‘전사’라고 칭했던 시인은 ‘나의 칼 나의 피’, ‘사상의 거처’ 등의 작품집을 남겼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출신 박승유, 양주시향 신임 지휘자 선임

광주 출신인 박승유(사진)지휘자가 양주시립교향악단을 이끌게 됐다.

경기도 양주시는 7일 양주시립교향악단을 이끌 신임 지휘자로 박승유를 최종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5세 때 첼로를 시작, 호남예술제 등에서 입상한 박 씨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지휘를 전공했으며,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제 콩쿠르 2위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K아트 예술감독, 사)한국지휘자협회 정회원과 사)한국음악협회 광주시지회 국제교류분과



박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연구소 ‘全南文化財’ 제20집 출간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 전남문화재단연구소는 고고학 및 문화유산 전문 학술논문집 ‘全南文化財(전남문화재·사진)’ 제 20집을 발간했다.

‘전남문화재’는 전남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밝히고, 마한의 학술적인 성과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논문집에는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연구 논문을 포함해 시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주제가 담겨있으며, 고고학 관련 2편, 고대사 1편 등 3편이 수록됐다.

부록에는 마한 최고의 수장급 무덤으로 밝혀진 영암 내동리 쌍무덤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마



집(http://jnfc.or.kr)에 원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한문화유산 답사, 동아시아 고대해상왕국 마한 문화행사 등 2021 연구소 행사 및 소식을 담았다.

전남문화재 제20집은 국내 문화유산 관련 연구기관, 박물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전남문화재단연구소 누리